

# 최근 북한 경제 현황과 2009년 전망

이 해 정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 최근 북한 경제 평가

### 경제 현황

#### ① 거시 경제<sup>1)</sup>

최근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 북한의 GDP는 전년대비 2.3% 감소하여 전년(-1.1%)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2007년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기상조건 악화 등으로 식량생산이 크게 감소하여 농업부문이 -9.4%의 성장세를 기록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공업과 건설업이 각각 -1.7%, -1.5%를 기록한 것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성장률 추이에 대해 공식통계는 2005년부터 발표되지 않고 있고, UN도 2007년 추정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농업 부진과 소비재 산업의 악화로 2007년 경제성장률은 저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한국은행, 「200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08. 6

〈 북한의 GDP 성장률 추이 〉

(단위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북한 공식통계	0.5	0.1	3.2	3.9	3.2	7.7	4	-	-	-
UN 추정치	-1.1	6.2	1.3	3.7	1.2	1.8	0	0.9	0.4	-
한국은행 추정치	-1.1	6.2	1.3	3.7	1.2	1.8	2.2	3.8	-1.1	-2.3

\* 북한의 공식 통계는 북한 당국의 UN 제출 자료

\*\* 한은 및 UN 추정치는 각 기관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bok.or.kr>, <http://unstats.un.org>

자료 : KDI, 『북한경제리뷰』, 2008년 7월호 p. 114

한편, 2008년에는 소폭 회복세를 보여 제로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된다. 2007년 특히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되는 농업과 경공업 분야를 살필 때, 경공업 분야 집중 육성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농업 분야의 곡물 생산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이를 경제 건설과 동격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2)</sup> 김정일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통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이를 독려한 것도 북한 체제의 특징을 볼 때 소정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3)</sup>

② 산업별 현황

우선, 농업 부문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은 2007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2006년에 비해 11% 감소한 401만 톤으로 추정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곡물 수확량이 감소한 원인은 두 차례에 걸친 홍수 피해와 비료 공급량 감소로 인한

2) 실제로 북한은 지난 7월, 올 상반기 북한의 산업생산이 4대 선행부문과 인민소비품 생산부문을 중심으로 당초의 목표를 크게 상회하였다고 주장. 소비재 생산을 담당하는 편직(117%), 비단(116%), 방직기계(105%) 등의 부문은 물론 전력(105.9%), 석탄(101.7~107.2%), 철도수송(100.3%) 등 초과 생산 발표. 자세한 내용은 통일연구원, 『북, 상반기 경제 계획 초과 달성』, 『주간통일정세』 2008년 27호, p. 5 및 통일부, 『산업부문별 상반기 계획 초과 수행 보도』, 『북한동향』 제898호, p. 3.

3) 〈 김정일 경제 부문 현지지도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횟수	37	39	52	24	48
경제부문 횟수	4	4	3	5	14
경제부문 비율	10.8%	10.2%	5.8%	20.8%	29.2%

\* 2008년의 경우, 6월 16일 현재 기준임

자료 : 통일부, 『북한동향』 제895호, KDI, 『북한경제리뷰』, 2008년 7월호 p. 115 재인용.

것으로 평가된다.<sup>4)</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곡물 생산량을 2007년 수준과 비슷한 380~400만 톤으로 예상하였다.<sup>5)</sup> 최근 발표된 FAO와 WFP의 공동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곡물 생산량은 도정 전 기준으로 전년의 360만 톤 대비 약 17% 증가한 421만 톤으로 추정된다.<sup>6)</sup> 이들 의견을 종합할 때, 2008년 곡물 생산량도 2007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 2007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정 〉**

구분	계	쌀	옥수수	맥류	두류	서류	잡곡
재배면적(천 ha)	1,610	587	526	137	139	201	25
단위 생산량(톤/ ha)	-	2.60	3.02	1.77	1.11	3.19	0.70
2007 생산량(만 톤), A	401	153	159	25	15	47	2
2006 생산량(만 톤), B	448	189	175	21	16	45	2
2006 대비	감소량(A-B)	-47	-36	-16	4	-1	0
	감소율(%)	-11	-19	-9	17	-2	0

자료 : 농촌진흥청, 2007. 12

다음으로 광공업 분야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2007년 광업은 금속광물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석탄 및 비금속 광물의 생산 감소로 전년에 비해 0.4%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철광석, 중석 등 금속 광물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석탄 및 비금속 광물 생산은 각각 0.5% 및 5.1% 감소하였다. 2007년 제조업은 경공업이 부진을 보였으나 중화학공업의 성장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하였다. 2008년 상반기 북중 무역에서 광사 및 광석의 수출이 증가(전년 동기대비 69.4%, 1억 1,769만 달러)한 것으로 볼 때, 광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sup>7)</sup> 2008년 상반기 북중 무역에서 원자재 및 연료가 되는 광물성 생산품의 수입

4) 2007년 북한이 외부로부터 도입한 비료의 양은 378,864톤으로 2006년의 446,951톤에 비해 18% 감소(권태진, 「북한농업동향」 제9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1. p. 10

5) 권태진, 「북한농업동향」 제9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1. p. 12, 및 연합뉴스, “北, 올해 곡물 170만t 증산 전망” 〈FAO〉, 2008년 8월 6일자 기사.

6)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8년 12월 8일자 보고서.

이 증가(전년 동기대비 68.1% 증가, 3억 228만 달러)한 것으로 볼 때 제조업 생산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또한 6자회담에 따른 주변국의 증류 제공의 효과도 제조업 분야의 성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sup>9)</sup> 따라서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전기가수도업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2007년 전기가수도업은 수력발전 5.6% 증가와 화력발전 5.2% 증가로 전년대비 4.8% 성장하였다고 밝혔다. 대북 에너지설비자재 지원 실무그룹회의에서 북측은 공급받는 자재와 장비를 동평양화력발전소 뿐 아니라 태천발전소 등 북한 내 발전소들을 현대화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 등을 고려할 때,<sup>10)</sup> 2008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단위 : %)

	2005	2006	2007
농 립 어 업	5.0	-2.6	-9.4
광 공 업	4.4	0.9	0.7
광 업	3.5	1.9	0.4
제 조 업	4.9	0.4	0.8
( 경 공 업 )	(3.9)	(-0.6)	(-1.7)
( 중 화 학 공 업 )	(5.4)	(1.1)	(2.3)
전기가수도업	4.4	2.7	4.8
건 설 업	6.1	-11.5	-1.5
서 비 스 업	1.3	1.1	1.7
( 정 부 )	(0.6)	(0.8)	(1.8)
( 기 타 )	(2.9)	(1.8)	(1.5)

자료 : 한국은행, 「200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08. 6. 18. p. 3

7)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석탄 및 비금속광물의 생산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년도 석탄부문 월별 생산 성과〉

1월	2월	1/4분기	4월	상반기
성과적	책임자각·혁신	계획대비 112%	넘쳐 수행	계획대비 101.7~107.2%

자료 : KDI, 『북한경제리뷰』, 2008년 6월호 p. 71 재구성

8) 실제로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 경공업省 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1.4배 장성했다”고 보도(7.24 중앙방송)하였으며, “기계공업부문의 생산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1.2배 장성했다”고 보도(8.28 중앙방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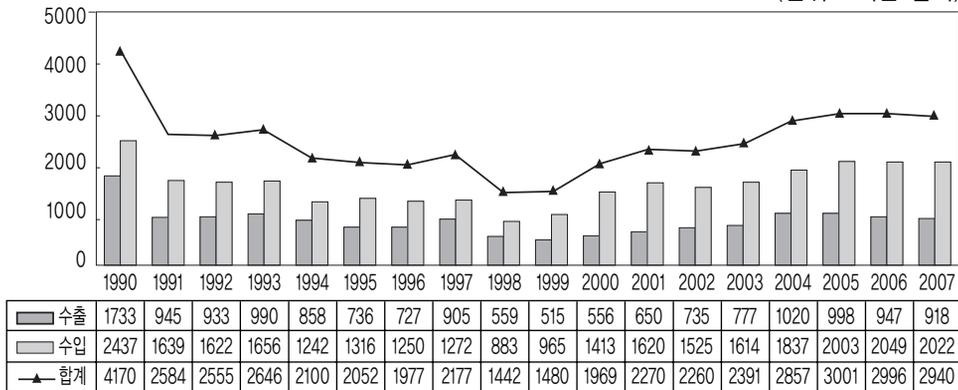
9) 지난 7월말 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회담 대표는 미 상원에서의 증언을 통해 현재 북한이 6자회담의 1,2단계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주변국으로부터 40만 톤이 넘는 증류를 제공받았다고 증언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연간 석유수입량이 평균 60만 톤 내외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러한 대북 증류 지원이 북한 경제의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규모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DI, 「2008년 7월 북한경제 동향」, 『북한경제리뷰』 2008년 8월호, pp. 79~80.

③ 북한의 대외 무역<sup>10)</sup>

2007년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남한과의 교역을 포함하면 47억 3,900만 달러 수준으로 세계 127위 수준이다. 1990년 이후 남한과의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는 감소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증가하였고, 2004년 이후는 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1999년 이후, 남한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 무역 상대국 중 對 중국, 태국 무역은 증가한 반면, 對 일본, 홍콩 무역은 감소하였다. 2007년 북한의 총 무역액 중 중국과의 무역액은 19억 7,397만 달러로 6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태국과 러시아가 각각 7.8%, 5.4%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다른 산업으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1차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위주로 대외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은 1999년 이후 동식물성제품과 섬유제품 수출 다소 감소하고, 비금속류의 수출은 상승하였으며, 광물성생산품은 2003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식료품과 광물성생산품이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를 반영하고 있다.

〈 북한의 연도별 대외 무역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KOTRA,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10) 연합뉴스, 北, 동평양화력발전소 현대화...6자회담 덕분, 2008. 5. 28일자 보도, 실제로 조선신보는 5월 28일 “수도에 있는 전력생산 기지의 하나인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개건, 현대화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하였으며, 원산청년발전소 건설 마감 단계 보도와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의 생산성과 보도도 이어졌다(7.14 중앙방송).

11)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한편, 2008년 상반기 북중 무역은 전년 동기대비 25.6% 증가한 11억 4,403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중국의 대북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1.3% 증가한 8억 1,898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13.5% 증가한 3억 2,505만 달러를 기록해 수출부문에서 높은 증가세 보였다.<sup>13)</sup>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성 생산품, 섬유 제품, 비금속류, 동식물성 제품 등의 순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료와 기계, 전기전자 부분, 곡물 등의 순위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물성 연료(전년 동기 대비 68.1% 증가)와 곡물(전년 동기 대비 273.5% 증가)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원유와 곡물의 수출 단가 인상과 더불어 북한의 고질적인 연료난과 식량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④ 남북 경협

2008년 10월 현재 남북간 교역액은 15억 5,5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교역액 14억 3,958만 달러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남북교역의 주요 증가 요인은 남북교역의 93.9%를 차지하는 상업적 거래가 1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10.7억 달러 대비 34.9%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성공단의 대폭적 증가(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97%)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 남북 교역의 연도별 추이 〉

(단위 : 100만 달러)

	1995	1998	2000	2005	2006	2007	2008.1~10
총 교역	287.3	221.9	425.1	1,055.8	1,349.7	1,797.9	1,555.2
- 반입	222.9	92.3	152.4	340.3	519.5	765.3	782.3
- 반출	64.4	129.7	272.8	715.5	830.2	1,032.6	772.9
교역수지 (실질수지)	-158.4 (-169.4)	37.4 (-40.6)	120.4 (-61.3)	375.2 (-220.8)	310.7 (-325.6)	267.2 (-500.2)	9.4 (-346.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남북 교역 통계』, 각호 및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참조.

주 : 실질수지는 비거래성 물자의 반출입을 제외한 것으로, (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의 교역수지임

12) 한국무역협회, 『KOTIS 무역 통계』.

13) 상반기 북중 무역 실적은 올 상반기 남북교역 규모(8억 8,079만 달러)를 2억 6,000만 달러 이상 초과한 것으로 올해도 작년에 이어 중국이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교역중 상업적 거래 비중(93.9%)이 전년 동기(76.3%) 대비 증가 추세이며, 남북교역의 상업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개성공단 교역의 대폭 증가(6억 78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로 경제협력사업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북 식량 지원 등 지원성의 비상업적 거래는 전년 동기비 1/3 수준 이하로 줄어든 9,46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경제 협력 사업의 주요 내역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경제 협력 사업				상업적 거래 합계
	금강산	개성공단	기타	소계(비중)	
1998	37.7	0	1.2	38.9 (21.3%)	182.5
1999	40.7	0	6.3	47.0 (19.9%)	236.1
2000	16.2	0	17.4	33.6 (12.3%)	273.3
2002	11.9	0	13.1	25.0 ( 6.8%)	367.9
2004	41.8	41.7	5.8	89.2 (20.4%)	436.5
2005	87.1	176.7	6.2	270.0 (39.2%)	689.5
2006	56.7	298.8	15.5	371.0(40.0%)	928.1
2007	114.8	440.7	11.9	567.3(39.6%)	1,431.2
2008. 1~10	62.3	678.0	18.6	758.9(52.0%)	1,460.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남북 교역 통계』, 각호 및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참조.  
 주 : 경제 협력 사업의 비중은 전체 상업적 거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경제 정책**

북한의 2008년 신년공동사설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인민생활제일주의의 강조이다.<sup>14)</sup> 이를 위해 다음의 4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 등 전통적인 4대 선행부문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복종’ 시키고 ‘결정적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민경제선행부문 정상화 추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소비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비품 생산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의지 표명하면서 인민 생활의 향상을 강조하고

14) 조동호, 「기대와 비판 속의 자력경쟁 전략 : 신년 공동사설에 나타난 2008년 북한 경제정책 구도 분석 및 전망」,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2008년 제14권 2호, pp. 87~114.

있다. 셋째, 식량문제, 먹는 문제 해결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고 표현하면서 이의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경제강국건설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하면서 온 나라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 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08년 8월 중순 이후에는 2008년 상반기 북한 경제 성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선전전에 돌입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연설에 나타난 개혁·개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강조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역설하면서 경제정책의 보수화 성향을 보이고 있다.<sup>15)</sup> 지난 8월말 시장에서의 곡물매점매석을 이유로 일부 거래인들이 처벌된 것을 시작으로 청진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장단속이 다시 실시되고, 개인 수공업자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가 이루어져 시장 통제가 본격화 되고 있다.<sup>16)</sup>

## 2009년 북한 경제 대내외 여건 분석

### 2009년 북한의 대내 경제적 여건

북한의 대내 경제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체 역량, 경제 정책, 대외 무역 등의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체 역량을 살펴보면, 북한 경제는 1999년도 이후부터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멈추고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6년과 2007년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 1999년 이후의 회복세가 본격적인 산업생산력의 회복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었다. 2006년과 2007년의 마이너스 성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연이은 기상 조건의 악화로 인한 농업 생산물 저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으로의 반전은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세가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는 아니었으며, 2002년 7.1 조치에 의한 경제개혁 시도도 거시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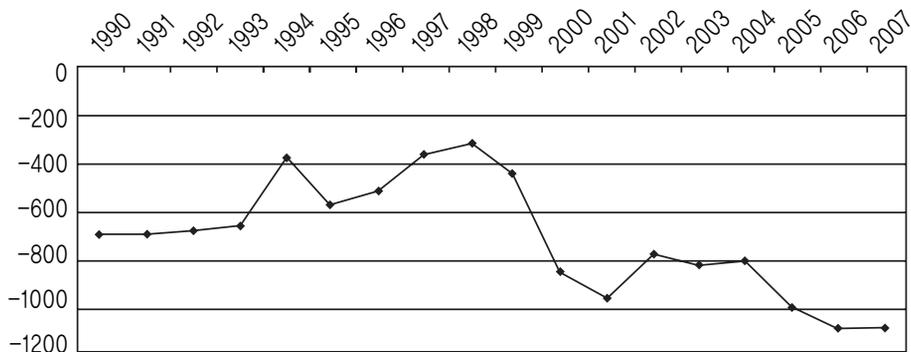
15) 통일부, 「북한방송 주요논조」, '김정일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선전', 2008. 9. 29 등 KDI, 『북한경제리뷰』, 2008년 9월, pp. 55~56.

16)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및 연합뉴스 "북 청진시장서 단속원과 여성들 또 마찰", 2008. 9. 9일 기사 등

가져오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 내부에 성장을 위한 투입 변수가 거의 고갈되어 있으므로 경제 성장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자체적 내부 역량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sup>17)</sup> 다음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년, 김정일 70세가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여는 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에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주민 기초 생필품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를 토대로 2009년부터는 본격적 성장 토대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의 경제 정책도 여기에 포커스를 둔 정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대외 무역을 살펴보면, 북한의 무역적자 규모는 1998년 3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7년 11억 40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수출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북한의 내수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 및 에너지난으로 매년 상당한 수준의 식량 및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적극적으로 수출 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한 무역역조현상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 북한의 무역적자 규모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KOTRA,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1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8』, pp. 133~168.

## 2009년 북한의 대내외 경제 외적 여건

미국 오바마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전에 북핵 검증의정서가 6자회담에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3단계 진전을 향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 수립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2009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적어도 2009년 상반기 중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핵 및 북미관계, 남북관계, 대외관계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다음의 3가지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낙관적 시나리오로 북핵 폐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북미간 국교정상화 등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가속화되고,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대규모 남북 경협 사업이 확대되며, 국제사회의 지원 및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는 시나리오다. 둘째, 비관적 시나리오로 북미간 대결구도로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의 해제가 지연되며 남북간 상호 비방의 강도가 높아지며 대외 원조가 중단되고 북한 체제 내부가 동요되는 시나리오다. 셋째, 중립적 시나리오로 북핵 협상과 관련하여 진전과 서행을 지속하며, 현 수준의 남북 경협이 유지되며 국제사회의 지원도 북핵 진전 여부에 따라 조절되는 시나리오다. 한편, 특별한 전환적 사건이 없는 한 2009년 북한의 대외 여건은 중립적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09년 북한 경제 전망

### 2009년 북한의 대내 경제적 여건 전망

앞서 제시한 분석틀에 따를 때, 2009년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 및 남북 경협에 따른 외화 유입량 및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등 자체 역량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해 2008년에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주민 기초 생필품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를 토대로 2009년부터는 본격적 성장 토대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업 부문에 있어서도 2008년에 이어 인민생

〈 북한의 대내외 경제외적 여건별 시나리오 〉

	낙관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	중립적 시나리오
북핵·북미관계	- 북핵 해결 - 북미 국교정상화 추진	- 북미간 대결구도	- 핵 협상의 진전과 서행 지속
남북관계	- 유연한 대북정책 - 남북 경협 확대(대규모 SOC 사업 등)	- 남북간 경색국면 심화 (상호 비방 심화)	- 정경연계의 대북정책 - 현 수준의 제한적 경협 지속
대외관계	- 국제사회 지원 확대 - 외국인 투자 활성화	- 대외 원조 중단	- 북핵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외부 지원 조절

활 향상을 위한 농업과 경공업의 생산 증대 노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09년에도 보수적이고 경직된 경제정책이 추진될 경우 북한 경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식량과 경제사정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의 시장통제가 경직적으로 흐를 경우, 1990년대 중반 함경도 등 동북지역에서 발생한 경직적 정책 운영에 따른 기근 등의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sup>18)</sup> 북한의 대외 무역과 관련해서는 무역 상대국의 다변화와 거래 품목의 다양화 실패로 현재 무역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체되어 있는 현재의 30억 달러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전·후방산업에 영향을 거의 미칠 수 없는 1차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위주의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외 무역이 경제 성장과 교역 규모의 증가로 파급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당분간 무역적자도 지속될 전망이다. 남북 경협과 관련하여서는 남북이 특별한 정책 변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남북 경협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대내외 경제 외적 여건 전망**

우선, 북핵을 비롯한 북미관계를 살펴보면, 미국의 오바마 신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 조정 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북핵 협상이 지연될 가능

18) KDI, 『북한경제리뷰』, 2008년 9월, p. 56.

성이 높아 핵 협상과 관련하여 진전과 서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미간 직접 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당선자의 노력과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급속도로 3단계 진입이 추진될 여지도 남아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는 2008년과 비슷한 정경연계의 대북정책에 따른 정체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비핵·개방·3000 등 대규모 경협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관계를 살펴보면, 국제사회의 지원은 핵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보상 및 징계의 성격으로 지원 규모와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 경제 전망

국제 금융 위기의 여파는 북한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제1교역국인 중국이 외평채 및 CDS(Credit Default Swap) 금리의 상승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비상을 겪고 있는 것은 중국의 대북 투자 및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 금융 위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대북 원조 분위기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침체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시사점과 과제 : 북한 경제의 자생력 확보 방안

북한은 먼저 경제 외적 불안 요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물론 남북 경협까지도 북핵 협상의 진전 여부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북한 경제 논의의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테러지원국 해제가 완료된 현 상황에서 북핵 2단계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통해 북미·북일간 국교 정상화의 논의가 시작되면 북한의 정상국가화 작업은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이 필요하다. 물질적 인센티브와 기업소의 분권화·자율 경영 확대, 국정 가격과 종합시장 가격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가격 개혁 등 7.1 조치를 보완하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특구의 인프라 확충과 법·제도적 합의의 실질적 이행과 준수, 통행·통관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경험의 제도화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인프라의 확충으로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 외자 유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 경험의 발전적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송고한 애국사업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경험을 '다방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을 볼 때, 남북 경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 경험사업의 다방면의 추진을 통해 남북 경험을 북한 경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내수 측면에서의 생산성 취약으로 자체 회복이 어려운 북한 경제의 현황을 평가할 때, 남북 경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국제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한 극심한 경제 침체의 우려도 제기된다. 統